

물관리 통합·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 방안 모색 -



충청남도과와 충남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 1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충청남도 물관리 대책본부 설치·운영방안'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한국과학기술원 신항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남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란 주제로 신성대 손무정 교수,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이상진 센터장, 푸른충남21 최진하 처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은 "그동안 관리 목적에 따라 분산 추진하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한 '물 관리 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반영 하여 그동안 4국 8과 12담당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위 업무로 분산 추진해오던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의 물관리 정책이 한 단계 진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